

# 永久齒萌出이 性格發達에 미치는 영향

九宜齒科醫院

金 潤 換

## PERMANENT TEETH ERUPTION INFLUENCE TO PERSONALITY DEVELOPMENT

心理學에서 人間의 性格(Personality)의 發達過程을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性格發達過程을 分類하여 嬰兒期 幼年期 思春期로 區分하고 다시 嬰兒期는 口腔期와 肛門期로 區分하며 幼年期는 生殖器期, Oedipus complex, 潛伏期(latency period)로 3分한다.

第一大白齒萌出時부터 第二大白齒萌出時까지에 該當하는 滿6~7歲부터 12歲까지를 心理學에서는 潛伏期로 본다. 이 潛伏期에는 性的 흥미가 제한되어 있고 生理的으로 노골화 되지 않고 自己 性的 確立, 同性과의 同一化는 한층 強하게 進行되고 家庭에 局限되어 있던 對人關係가 家庭밖의 外部사람들로 차츰 확대되어 가면서 個人의 社會化(Socialization)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潛伏期の 後期는 공격적 파괴적 衝動的의 조절, 社會的地位에 대한 關心과 推究가 크게 問題되는 時期이며 社會의 壓力을 느끼며 그 안에서 自身の 機會와 自己의 能力의 表視도 問題가 되는 時期라고 하였다.

이 時期는 潛伏期이라고하는 語彙가 말하듯이 心理學에서는 性慾을 너무 重要視한 나머지 個體保存의 本能인 自我衝動을 輕視한 느낌이 있다. 이 潛伏期는 永久齒萌出에 따라 攻擊心이 增加하면서 自我衝動이 強해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種族保存의 衝動에 해당되는 性慾은 潛伏하지만 個體保存을 위한 自我衝動은 더욱 強해진다. 幼齒萌出時에 해당하는 口腔期와 永久齒가 萌出하는 潛伏期는 種族保存의 衝動인 性慾보다 自我衝動이 強化되어, 攻擊心이 問題되는 時期이다. 心理學에서는 潛伏期에서 보다 口腔期에서 攻擊心을 더 問題삼고 있으나 齒醫學에서는 永久齒가 萌出하는 潛伏期가 口腔期보다 더욱 중요한 意義를 갖는 時期로 보는 것이다.

口腔期後期에 幼齒가 萌出되면서 배우기 시작한 攻擊心은 계속 父母의 保護속에서 生活하면서 內在化되어 있으며 受動的인 常態를 지속하다가 永久齒가 萌出하면

서 增加하기 시작한다. 滿4~5歲때에는 顎骨의 發育이 빨라지고 永久齒萌出準備를 거의 완료하게 되는데 이 時期는 대개 心理學에서 말하는 Oedipus Complex에 해당하는 時期이다. Freud는 이때 libido의 對象이 異性的의 父母라고 말했다며 차차 libido의 對象이 父母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對象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랑의 對象이 될 수 없는 父母에게 의존하여 사는것도 不可하다는 생각을 갖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自我衝動이 생기고 독립심을 키우면서 永久齒가 萌出한다. Oedipus Complex 後期에 사랑의 대상이 父母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同時에 身體的으로는 永久齒萌出準備를 한다. 이때까지 生活은 安定되어 있으며 과잉한 energy가 Oedipus Complex와 같은 erotic한 현상이 心理的으로 나타나다가 潛伏期에 접어들면서는 家庭밖의 사람들과의 對人關係를 갖게되는 生活의 變化가 나타나며 自我衝動이 強化된다.

幼齒의 脫落이 家庭으로 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면 새로운 外部世界에 적응하기 위한 힘에 해당되는 攻擊心이 永久齒萌出과 關聯이 있다. 幼齒의 탈락은 Freud가 말한 死의 本能과 有關한 것이다. 再建設을 위한 파괴는 불가결한 것이며 幼齒脫落은 生理的 現象이지만 그에 따른 心理的 變化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Freud가 말한 거세 Complex는 가상적인 것이지만 幼齒脫落은 현실적 意味를 갖고 있기 때문에 去勢 Complex보다 幼齒脫落이 心理的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리라고 생각한다. Freud가 꿈의 分析에서 齒牙가 빠지는 꿈을 去勢Complex로 分析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自我衝動의 弱化 또는 죽음과 關係되는 것으로 分析되어야 옳을 것이다. 괴로운 過去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괴로운 過去를 씻어 버리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慾望이 있을 것이다. 이때의

죽고싶은 慾望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慾望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幼齒脫落과 永久齒萌出과 유사하다. 즉 죽고 싶은 慾望은 幼齒脫落이고 새로 태어나는 것은 永久齒萌出이다.

幼齒脫落은 攻擊心의 保留를 배우며 進歩를 위한 後退를 알게 되고 安定된 生活의 崩壞에 새로운 生活로 나가기 위한 準備를 하는 方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俗談에 「미운 일곱살」이라는 말은 이때의 心理 常態를 잘 表現한 말이다. 이 幼齒脫落時期에 攻擊心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괴적인 行動 即 말썽을 부리는 일을 보게 된다.

永久齒萌出과 同時에 攻擊心이 增加하여 增加된 攻擊心을 조절하면서 自己能力을 배양하여 外部의 사람들과의 生活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萌出되는 永久齒의 數만큼 攻擊心의 量도 比例하여 增加한다. 即 萌出되는 永久齒의 數나 增加하는 攻擊心의 量이 段階的으로 增加하는데 이 段階的 增加라는 것은 급작스런 變化가 아니므로 自己能力을 배양하는 問題나 外部사람들과 적응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뜻이 된다.

永久齒萌出과 함께 咀嚼力의 增加와 攻擊心의 增加로 인한, 음식물섭취량의 增加와 自我衝動的 強化가 社會化를 돕고 同性의 同一視를 이루게 하며 自己愛的 性格이 된다.

國民學校入學이라는 환경의 變化는 自我衝動的 必要性을 더욱 느끼게 하며 永久齒萌出과 함께 增加한 自我衝動이 이와같은 환경의 變化에 적응 할 능력을 얻게 한다.

現代韓國에서는 國民學校에 入學하면서 攻擊心은 경쟁심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자라서는 個體保存을 위한 自我衝動이 생존경쟁으로 나타난다. 옛날에 비하여 文化가 發達될수록 또는 農村生活보다 都市生活은 精神의 勞動이 肉體의 勞動보다 더 필요하게 되며 따라 自我衝動은 身體的 發達보다 知識을 얻기 위한 精神力 發達에 발산된다. 따라서 現代科學의 發達は 身體的 弱화를 가져오고 學校生活에서부터 생존경쟁의 勝利者가 個體保存을 잘 영유하는 사람으로 誤認된다. 個體保存을 위한 自我衝動은 相對的인 것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學校生活에서부터 다른 學生들 보다 優越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경쟁심을 키운다. 더욱이 身體的 發達을 위하여 있는 體育도 勝負를 하는 競技로 되어 있기 때문에 自我衝動을 相對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심에 의해 따라서 적개심으로 變하여 異常心理의 原因이 될 수 있다.

本能에 關한 問題는 動物에서 찾아 人間과 비교하는 것이 理解가 쉬울 것이다. 鳥類에 있어서 孵化하여 처음에 主둥이가 아직 硬化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미가

조아 주는 연한 모이를 먹다가 어느 段階에 主둥이가 硬化되면 새끼자신이 모이를 조아 먹게 된다. 병아리가 자라서 自己 스스로 모이를 조울 수 있게 되면 어미 닭은 병아리가 어미 닭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의존적인 狀態에 있던 병아리가 主둥이가 硬化됨과 함께 攻擊心을 배우고 여기에 어미 닭이 獨立心을 키워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미 닭의 품에서 外部世界로 나가서 獨立的으로 個體保存을 營爲하게 된다.

人間은 精神의 發達過程이 병행하므로 어느 期間까지 依存的인 常態를 탈피하지 못하며 動物과 다른 過程을 밟게 된다.

Freud는 性慾이 抑壓되어 있는 것을 發見하고 自我衝動과 性慾의 두 가지 衝動間에 拮抗이 있다고 假想하였다. 그러나 思春期以前에 있어서는 性慾의 抑壓이라는 表現보다는 性慾의 保留라고 表現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人間의 成長과 發達過程에서는 性慾과 自我衝動은 서로 時期的으로 交叉하여 強化되는 것이라고 본다. 即 口腔期와 潛伏期는 個體保存을 위한 自我衝動이 強化되는 時期이며 生殖器期(phallic stage)와 Oedipus Complex, 思春期는 種族保存을 위한 性慾이 強化되는 時期라고 본다. 肛門期(anal stage)는 種族保存의 衝動이 강한 時期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自我衝動이 種族保存의 衝動으로 넘어 가는 과도기적 의미를 갖고 있는 時期라고 보며 Oedipus Complex後期는 種族保存의 衝動에서 自我衝動으로 넘어 가는 過渡期로 생각한다. 이와같이 이 衝動이 서로 交叉하면서 段階的으로 차차 強化되다가 成年期가 되면 女性에 있어서 menstration Cycle에 따르거나 晝夜에 따라 交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即 낮에는 自我衝動이 強하고 밤에는 性慾이 強해지는 것이다. 電氣를 使用하는 現代人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므로 自我衝動은 弱화되고 種族保存의 衝動은 強化되면서 身體는 弱化되고 人口는 增加되는 結果를 찾아 왔다고 생각한다.

人間의 成長에 따라 이 두가지 衝動이 交叉하면서 強化되는 過程은 解剖學的으로나 機能的으로 口腔과 Sexual organ이 有似性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멧돼지에 비유되는 大白齒나 질구에 비유되는 小白齒의 作用은 Sexual behavior와 機能的으로 有似性이 있기 때문에 口腔에서의 食慾이 Sexual Organ의 性慾으로 移行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Freud는 libido學說에서 性慾을 過重視한 듯하며 相對的으로 自我衝動에 의한 本能을 輕視한 느낌이다.

李東植教授는 「오늘날 性解放의 時代에 있어서는 性

慾보다 攻擊의 衝動이나 적개심을 토대로 한 고독이라는 것이 큰 問題인 것 같다」고 하였다.

齒醫學의 觀點에서 보면 第一大臼齒가 萌出하는 만6歲부터 第二大臼齒가 萌出하는 만12歲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時期로 보지만 心理學에서는 潛伏期로 취급하여 libido가 弱화되어 Personality發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精神과 身體의 統整에 의해서 永久齒萌出에 의한 攻擊心은 性格發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알렉산더는 口愛 肛門愛등의 性的 前性器的인 示顯을 역시 自己保存에 필요한 나머지 흥분의 시현으로 보며 모든 erotic한 현상이 遊戲의 性格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의 遊戲가 성장에 따라 연습을 해 온 機能이 공리적인 目的으로 統整된다고 말한다. 成人에 있어서도 自己保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남은 과잉한 energy는 erotic한 방식으로 발산된다. 有機體가 성장의 한도에 도달한 뒤 使用하고 남은 것은 生殖의 형식으로 발산되든지 生殖(性慾)의 승화된 형태인 生産的인 창조적활동으로 발산된다」고 李東植著「노이로제의 理解와 治療」에 기록되어 있다.

生理學者 아렉시스·가레르는 말하기를 人間의 齒牙는 딱딱한 것을 깨물어 먹기 위한 것인데 齧養만 섭취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연하고 먹기 좋은 것만 먹게 되면 턱의 근육은 퇴화되고 齒牙의 存在理由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였다.

現代 韓國人들 가운데는 子女에 대한 과잉보호가 問題되고 있는데 이 과잉보호는 自我衝動的의 욕망을 억제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加工 調理하여 high calori의 연한 음식만을 먹게 하여 저작압에 의한 自我衝動的의 발산을 막는 것이다. 이와같이 저작압의 低下에 따른 攻擊心の 弱화 即 自我衝動的의 弱화는 加工 調理를 해 준 사람(主로 父母)에 依存하여 살아 간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依存的인 사람은 自我衝動이 弱化되고 結果的으로 齒牙도 弱化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理論에 의하면 當分の 섭취가 Caries의 原因이 된다는 것은 當분이 high calori이며 咀嚼力을 低下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自我衝動的의 弱화라고 하는 心理的 要因이 caries의 原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說明한 心因性으로 발생된 caries로 因하여 幼齒가 早期喪失된 후 永久齒가 萌出하면서 여러가지 問題를 야기 시킬 수 있다. 自我衝動이 弱化되어 依存的이었던 아이에 있어서 永久齒萌出後 급격한 咀嚼壓의 增加와 함께 파격한 攻擊心이 생기면 個體保存에 활용하기보다 파괴적이고 反社會的인 곳에 발산하기도 하고 과잉한 energy가 생겨서 種族保存의 衝動으로 발산하

면서 性倒錯症과 같은 異常心理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또 어떤 경우에는 永久齒가 萌出되면서 生理的으로 不正咬合을 형성하는데 이때에 계속 依存的이고 受動的인 性格으로 자랄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攻擊心の 增加에도 불구하고 이 攻擊心을 잘 조절하여 永久齒萌出後부터 自我衝動에 의한 個體保存을 스스로 잘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 父母의 과잉보호에 의하여 성장한 사람은 自我衝動이 低下되어 평생 依存的인 性格을 갖기 쉬우며 成長後 성격장애에 神經症 또는 精神病을 이르기 쉽다. 마찬가지로 咀嚼力의 저하는 체적이 작아진다거나 영양부족등 잔 병에 잘 걸리는 弱體의 人間이 된다거나 精神身體疾患에 이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같은 理論에 의하여 齒科疾患中에서도 心因性으로 不正咬合이나 齒周疾患이 생길 수 있다.

「늙으면 어린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늙어서 永久齒가 缺損되어 依存的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어린이와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老人이 되면 수분섭취가 增加되며 연한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는 精神的으로 依存的이고 수동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潛伏期를 지나서 과잉한 energy가 생기면서 차차 種族保存의 衝動에 활용하게 되는 思春期에 들어간다. 이 思春期이 어느 정도 경과한 後에 第三大臼齒가 萌出하게 된다.

現代人의 生活에서는 第三大臼齒의 意義가 별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것은 現代人에 結婚年齡의 증가와 같은 生活的 變化가 性慾의 抑壓을 要求하고 이에 따라 energy의 소비절약으로 因하여 第三大臼齒의 필요성도 적어진다고 본다. libido의 억제가 第三大臼齒의 미봉출 未補 또는 顎骨의 發育不全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원시시대에 있어서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강한 攻擊心이 필요했을 것이며 배우자의 선택이나 식구의 增加에 따라 강력한 energy가 필요했을 것이며 따라서 健康한 體格과 第三大臼齒가 필요했을 것이다. 現代人의 生活에 있어서는 第三大臼齒가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시시대에 있어서는 結婚과 第三大臼齒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意義를 갖고 있다고 본다.

어느 史書의 記錄에 의하면 新羅初期에 임금님을 뵈을 때 먹을 물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齒牙의 健康이 힘의 誇示로써 중요한 意義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永久齒의 萌出은 性格發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1) 韓東世「精神科學」5版 一潮閣 1972年
- 2) 李東植「노이로제의 理解와 治療」一志社 1974年